"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대리석"

'정선아라리' 미국서 최고급 평가 … 2백만불 수출 계약도

지난해 각종 언론에서는 '국산대리석'이라는 주제로 정선대리석(주)를 탐방 취재하고 인터뷰기사를 경쟁적으로 싣는 등 오랜만에 석재산업에 관심을 가져줬다.

이유인즉 지난 9월26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이원창 의원이 "현재 서울 용산에 짓고 있는 박물관 전시장 석재공사와 관련, 국산 대리석을 외면하고 품질은 떨어지면서 가격은 훨씬 비싼 수입대리석을 쓰느냐"는 질의를 한 것.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전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스페인과 터키산 싸구려 석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요지였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의원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국산 대리석이라니? 대리석도 국산이 있었나?'

"월드컵이 개최된 상암경기장 VIP룸과 김포공항 제1청사 내부 바닥 및 공항 연결 통로, 서울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가 강남구청역 등에 우리 정선아라리가 쓰였습니다. 한때 김포공항에 설치된 화려하고 독특한 대리석을 보고 '국가에서 발주한 공사에 웬 수입 대리석이냐'는 항의가 들어와 발주자측이 수입석이 아닌 국산대리석이라고 일일이 해명을 해야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선대리석(주)호영식 사장은 이러한 반응들이 즐겁다. 국내대리석이 수입대리석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아니, 사실 수입대리석 보다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싶다.

정선아라리는 세계적 석재 평가기관인 미국 스미스 에머리 연구소(Smith Emery Laboratories)가 무려 6개월에 걸친 정밀 테스트 결과 고품질의 석재로 판명되었다. 또 지난 해 1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세계 건축 내외장재 박람회'에 출품하여 미국의 '크리에이티브 인바이런먼츠社와 2백만불의 수출계약을 맺기도 했다.

점점 빠르게 바뀌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은 어느 업종을 불문하고 21세기 마케팅의 핵심일 것이다. 그러나 석재산업 전반의 분위기는 무척이나 보수적이다. '외벽은 회백색 화강암, 내부는 이태리산 대리석'의 공식을 정선대리석의 호영식 사장은 거부한다. 정선아라리만의 특성인 돌의 결과 무늬를 최대한 살려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다.

◇ 정선대리석 호영식 사장

언젠가 미국의 한 호텔로비에 대리석으로 조명등을 설치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길로 뉴욕까지 날아갔다. 얇게 킨 반투명의 대리석에서 뿜어내는 은은한 조명은 그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이를 응용해서 서울 인터컨티넨탈과 상암경기장에 대리석 조명등을 설치했다. 이렇게 조명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리석은 세계적으로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한다.

"힘들거나 지칠 때, 이제는 정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석산에 들어가서 막 잘려 나온 돌들을 보면, 너무나 예뻐서 그런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호영식 사장은 사무실에 전시돼 있는 '아라리'들을 보며 흐뭇한 표정이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과 너무 닮아있다. 그를 힘들게 하는 것도 돌이지만, 그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도 역시 돌이기 때문이다.

◇ 분당시 성요한성당 내부공사에 사용된 정선대리석. 독특한 결과 무늬로 생명력있는 공간을 연출한다.

석재업계 생존전략

일본의 석재전문지 '월간 석재'에서 제시한 석재업계의 살아남기 위한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문제점에서 그 단계와 상황이 닮아 있는 일본 석재산업과 국내 석재산업이니 해결책도 그와 크게 벗어나지 않을 듯하다.

◆ 석가공업체 케이스

1.가격의 2중구조에 현혹되지 말고 자사의 입장을 확실히 인식하고 가격경쟁에 따라 흔들지 말 것.

2.자사 고유의 모델, 디자인 등을 많이 개발할 것.

3.묘석업체의 경우 봉단, 봉구, 장의 등 관련상품을 함께 취급하도록 할 것.

4.다른 업종과의 제휴도 항상 염두할 것.

5.그룹화나 교환화에 의한 조직력을 활용할 것.

6.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욕구(need)를 알 것.

◆ 건축석재 케이스

1.건적경쟁에서 저가수주는 금물, 한계를 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그룹화에 의한 품질강화를 도모할 것.

3.분리발주에 의한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주를 도모할 것.

4.업무제휴에 의한 석재의 용 합화를 도모할 것.

5.새로운 시장 개척을 도모할 것.

채석관련 법률(採石關聯法律)

1.토석채취허가	산림법 : 제90조 제2항
2.산림훼손허가(도로,적치장)	산림법 : 제90조 제2항
3.구거부지 점용허가	공유수면관리법 : 제4조 제1항
4.배출시설허가	환경보존법 : 제51조 1항, 동 시행령 제16조 제4항
5.구획정리허가	건축법 : 제7조 제4항, 동 시행령 제10조 제4항
6.농지 일시전용	농지보존법 : 제20조 제2항
7.하천부지 점용허가	하천법 : 제25조 제1항
8.공장(사무실)설치허가	건축법 : 제7조 제1항
9.화약류양수 사용허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제18조, 화약류관리 제21 조
10.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 제13조 시행령 제9조
11.사도개설	사도법 : 제4조
12.사방지 지정해제	사방사업법 : 제14조, 제20조의 4
13.초지전용허가	초지법 : 제8조, 제23조
14.보존림지의 전용	산림법 : 제18조 1항,2항, 동시행령 제24조, 동시행 규칙 제19조
15.위험물 취급소	소방법 : 제15조
16.묘지이장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 : 제16조
17.농지전용의 제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 동 시행령 제3조

건축석재 수요감소 채석업계 '냉각화'

일본시장축소, 가격경쟁력도 중국에 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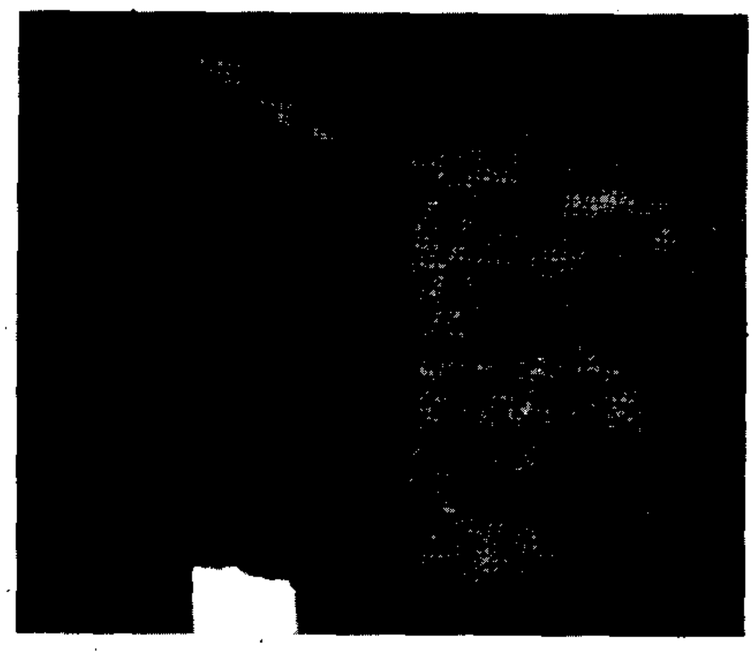
1960년대 일본이 외국산 석재류를 수입하면서 우리나라의 석재 수출은 시작되었다. 초반기 수출의 품종은 화강석 원석으로 일본 수입실적 통계에 따르면 1967년 658톤, 1968년 749톤, 1969년 3,221톤으로 급성장 곡선을 볼 수 있다.

1970년 4,649톤을 수출한 한국의 석재업자들은 석재수출조합을 구성하여 1971년 산림청으로부터 (사)한국수출석재생산업조합을 설립하였고 석재수출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한국수출석재생산업조합은 석재 수출 추천권을 상공부로부터 부여받아 조합의 추천 없이는 수출할 수 없는 독점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1973년도 부터는 원석 이외의 가공된 석제품 수출이 본격화 되었다.

이러한 대 일본 수출의 시작으로 한국의 석재산업은 말그대로 '산업'이라는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제3국의 시장이 없는 실정이어서 일본의 지속된 경기침체와 국제가격경쟁에서 중국에 밀려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본의 석재시장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석재류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석재수입상품은 각지에서 값싸고 질좋은 석재류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지난 1983년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중국 석재의 일본수입은 급신장하기 시작,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동안 1위를 지켜오던 한국을 제치고 전체 물량의 74.6%를 점유한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1999년도 일본이 세계 각국에서 수입한 석재류의 수입통계를 살펴보면 1,748,859톤(90,139,805,000엔)을 수입했고 이는 전년도 대비 3.7%증가한 수량이지만 금액면에서는 88%에 불과한 수치이다.

화강암 원석은 중국에서 79,773톤(1,419,992,000엔)을 수입해 톤당 가격이 17,800엔이었고, 한국에서는 42,687톤(463,674,000엔)수입해 톤당 10,682엔으로 나타났다.

화강암 제품은 중국에서 1999년도에 892,647톤(57,223,014,000엔)에 수입해 톤당 가격이 64,000엔이며 한국에서는 24,449톤(3,216,137,000엔)에 수입해 톤당 131,544엔으로 나타나 한국제품이 중국제품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가격임을 알 수 있다.

경제의 거품이 빠지면서 일본의 건축석재는 그 수요가 대폭 감소하고 시공단가의 하락으로 참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IMF이후 우리의 건축석재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건축석재 수요의 감소는 채석업와 가공업 수요의 감소로 바로 이어진다. 몇몇 특정 석종을 제외한 석산들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 문을 닫아 버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채석업도 점점 비슷한 길로 가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의 상승과 인력의 태부족으로 더욱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축소된 시장에서도 중국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져간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석재산업도 큰 혼란기를 맞고 있다.